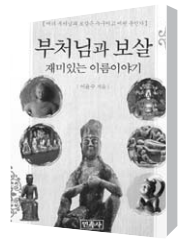


부처님 이름으로 알아보는 재미있는 경전 속 이야기



부처님과 보살 재미있는 이름 이야기
이윤수 지음
민족사 펴냄 | 9000원

석가모니부처님 아미타부처님 미륵부처님 이 많은 부처님과 보살들은 어떤 분이죠?

방송작가 이윤수씨가 펴낸 <부처님과 보살 재미있는 이름 이야기>는 이 같은 초등학교생의 질문에 쉽고 자세하게 답변해주는 선생님처럼 편안하게 설명한다.

저자는 머리글에서 "경전 속 이야기를 방송쟁이로서 조금 쉽게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소개한다. '조금 쉽게' 글을 써내려가기에 재미있고 편안하게 읽으면서 여러 부처님과 보살, 호법신중, 부처님 십대제자가 이르기까지 그들의 역사가 한 눈에 쏙쏙 들어온다.

"큰 서원의 웃을 입은' 보살이란 호칭으로 불리면서 우리가 얼마나 철저하게 깨달을 추구하고 있는지 얼마나 소외된 이웃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자는 저자 말을 듣다보면 이 책이 단순히 불보살에 대한 설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역사 속에서, 그리고 우리 이웃 속에서 발견되는 불보살의 모습도 각각의 설명 속에 녹아들어 있다.

강지연 기자

민권 성장을 각 사상적으로 뒷받침 신불융합의 역사가 '한눈에'



신라토착신앙과 불교의 융합사상사 연구
김재경 지음
민족사 펴냄 | 1만8000원

신라의 토착신앙과 불교는 어떻게 결합되었을까?

저자 김재경 교수(경일대)는 한국의 토착신앙을 "하늘과 광명을 신앙의 중심부로 삼아 신격 전반의 위계질서를 정돈한 일신중심적 다신병존체제"라고 설명한다.

여기에 신라의 중심 사람이었던 사천왕사와 왕실의 내제적 궁 등의 역할에 주목한 저자는 이들이 갖는 밀교성이나 토착신앙과 불교의 융합적 성격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동시에 불교권 밖 회랑 등 불교와 혼합된 토착신앙 세력이나 하나의 사상적 중추부를 형성하였음을 중심해 이들 토착신앙과 불교의 융합을 중심으로 하는 한국사상사의 새로운 해석틀을 제시했다.

"신라의 신불(神佛)융합과 그 융합 압축된 신불의 왕실 지원 및 반적들에 대한 초능력적 위무(威武) 확대는 왕권의 강화를, 피지주인에 대한 안강(安康)과 자애, 자학(自學)의 격려는 민권의 성장을 각기 사상적으로 뒷받침한 것이었다"고 저자는 신불융합의 역사성을 최종 요약했다.

강지연 기자

정관 스님이 직접 찍은 사진, 이 책의 보너스 번외에 빠질 땐 풍경소리 들어봐

산사에서 띄우는 풍경소리
정관 스님 지음
운주사 펴냄 | 9000원

"좀 더 많은 이들이 이글을 읽고 불자가 되도록, 불교에 더 깊이 빠지도록 도와주세요."

윤천사 주지 정관 스님이 수상집 <산사에서 띄우는 풍경소리>를 내며 밝힌 말이다. 스님은 "비록 서툰데 거친 글이지만 이 글을 읽는 이들의 가슴에 아름다운 꽃씨를 심어주고 싶은 욕심이 있다"며 포교 원력을 드러냈다.

두 권의 시집과 한 권의 수필집을 출간한 바 있는 정관 스님은 이번 책을 마지막으로 절필하겠다고 선언했다. "포교 원력으로 쓰기 시작한 글 만큼 더 이상 넘치게 할 필요가 없다"며 "남은 인생 포교에 매진하겠다"는 것이 스님의 생각이다.

<산사에서 띄우는 풍경소리>는 우리 사는 모습에 '불교설화'를 접목시켰다. 현실적인 고뇌와 맞닿은 불교설화는 더 이상 전해 내려오는 구절이나 책 속의

과거가 아니다. 번외에 빠져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전해주는 간결하면서도 감로수처럼 시원한 해답이다.

산사에서 일상적으로 부딪히는 풍경들을 소재로 한 글에서부터,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스님의 통찰력으로 풀어낸 글들과 스님의 어릴 적 추억들, 삶의 지킴이 될 불교의 가르침들로 <산사에서 띄우는 풍경소리>는 목차이다.

글 중간 중간 윤치가 가득한 사진들도 모두 정관 스님의 작품이다. 정도 운문사, 합천 해인사, 해인사 백련암, 윤천사 등에서 찍은 사진에는 스님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명구들을 정리해 붙였다.

지치고 힘들 때 스님의 책 한 구절을 읽어보자. "내일이 아니고 내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건강한 프로그램을 오늘 만들어라. 그것이 바로 오늘을 지혜롭게 사는 방법이다."

강지연 기자 jyang@buddhapia.com

현재 모습 들여다보며 행복찾기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다'

지금 행복해야 행복한거야
손기원 지음
지혜미디어 펴냄 | 1만 2000원

유사 이래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추구해 왔고 수많은 현자(賢者)들이 행복을 정의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이다.

왜 그럴까? 잘 나가던 회계법인의 대표직을 내놓고 자신이 하고 싶었던 일을 시작한 손기원 지혜경영연구소장. 그도 행복을 찾아 꽤나 헤맸다. 그러나 비교적 일찍 행복을 만났다. 아니, 행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비결을 터득했다.

그 비결은 명성이었다. 자신을 들여다 보는 것, 자기의 현실을 바라보는 것,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우치는 것, 그리고 행복을 받아들이고 행복을 느끼는 것에서 행복한 삶의 비결을 구했다.

"그날부터 나는 하루하루를 가장 행복한 날로 여기기로 마음먹었다."

<지금 행복해야 행복한 거야>를 통해 손 소장은 '지금 그리고 여기'를 행복의 현장으로 만들어 나가는 지혜를 안내한다. 갈망과 사색 그리고 방황과 깨

침의 고뇌와 회열로 연마된 손 소장의 '행복론'인 셈이다.

손 소장은 매일 3가지를 실천하는 것이 행복한 삶의 필수조건이라고 말한다. △느낌 선물받기 △모든 만남에 감사하기 △진정으로 바라는 것 선택하기 가 3가지다. 쉬운 일일까? 매일 명상을 하고 자신의 현재 모습을 들여다보는 노력이 없다면, 수시로 흔들리는 마음을 제어할 힘이 없다면 결코 쉬운 일 아니다.

그러나 행복을 원한다면 제2장 '나를 성공과 행복으로 이끄는 지혜'에 나오는 대로 따라해 보라. 언젠가는 이렇게 말하게 된다.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간절함이 화두... 고찰 기행으로 깨달은 것들 산사에서 들려오는 '지혜의 소리'



풍경소리 들려오는 길
김민자 지음
우리출판사 펴냄 | 1만원

수필가이자 조계종 포교사인 김민자씨가 10년간 160여 사람을 기행하며 찾은 것은 무엇일까?

김씨는 산사의 길에서 어김없이 풍경소리를 들었다. '이 바람이 불어와도 저 바람이 불어와도 자기 소리를 내는' 풍경소리. 풍경소리는 산사를 기행하는 김씨에게 들려오는 자비와 지혜의 소리였다. 그 소리들의 파동을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다듬어 한 권의 책이 됐다. 책에 실린 50여 사람은 웅만만 사람은 다 아는 고찰들이다. 고찰에 가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것이 전각과 탑과 부도를 비롯한 각종 문화유산들과 성보들이다. 그러나 이들이 보는 대로 보이는 것은 결코 아니다. 보는 눈에 따라 달리 보인다. 보는 눈에 따라 느낌이 다르고 해석의 잣대가 다르고 받아들이는 폭과 깊이가 다르기 때문이다.

김민자씨는 고찰을 보고 받아들이는데 '간절함'을 화두로 내세웠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살아가는 간절함과 세상 풍파를 지혜롭게 이겨내고 참불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함, 찬란한 문화재들이 제대로 보존되고 그 가치가 만대를 두고 현창되길 바라는 문화인으로서의 간절함 등등. 김민자씨의 간절함은 고찰이 갖는 의미와 가르침을 새롭게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은 단순한 사람담사기나 기행기가 아니라 사람을 통해 삶의 길을 바르게 열어가는 지침이다.

수필가 맹만자 선생은 이 책을 두고 "항심으로 이어지는 기도와 봉사, 그 구도의 발길 10년은 끊임없이 나를 비워내는 수행의 여정인 동시에 맑은 한 영혼의 기록"이라고 평했다.

임연태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사찰 100대 100선	허균	불교신문사
2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3	무문관에서 꽃이 피다	최만희 편자	운주사
4	하루 108배 내음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이름미디어
5	스님 마음이 불면해요	법륜	정토
6	오대산 노스님의 인과 이야기	과경	불광출판부
7	상식으로 만나는 불교	계환	정우서적
8	살아 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법정	조화로운 삶
9	생명의 고찰, 마음자리로 돌아가는 기림집	청화	상상예찬
10	부처님과 보살 재미있는 이름 이야기	이윤수	민족사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모든 불교서적이 모이는 곳

불교서적총판 운주사

전화 02)3672-7181 팩스 02)3672-7188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해와 달보다 더 밝은 그대 안의 '옛거울'을 찾아라

법현 스님

법현 스님 지음
신국판 양장본 / 416쪽 / 값 15,000원
현대불교신문사 발행

번외의 파도가 치는 지금 이 자리에서 진여(眞如)의 큰 바다를 보고
분별의 치열한 대립과 갈등의 현실에서 서서
자기 본래의 옛거울을 밝히니
그 찬란한 광명에 해와 달이 빛을 잃는다.

큰 기쁨으로 크게 쓰니 하늘과 땅을 토해 내고,
서강(西江)의 물을 다 들이켜니
비로자나 정상의 진법신(眞法身)이요
거리의 술집에서 쌍쌍으로 취한 아이들이라

"대자유인의 삶을 가리켜 보이는선 법문집의 백미"
서용대종사의 법제자 계산종성 장실의 법맥을 살려 한국 조계선종의
임제가풍을 정통으로 계승한 임제선원장 법현 스님의 사자후!

▶ 전국 서점 또는 '온라인 여시아문'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黔丹山 臨濟禪院 경기도 하남시 하산로35 135-3번지 전화 031)792-8825